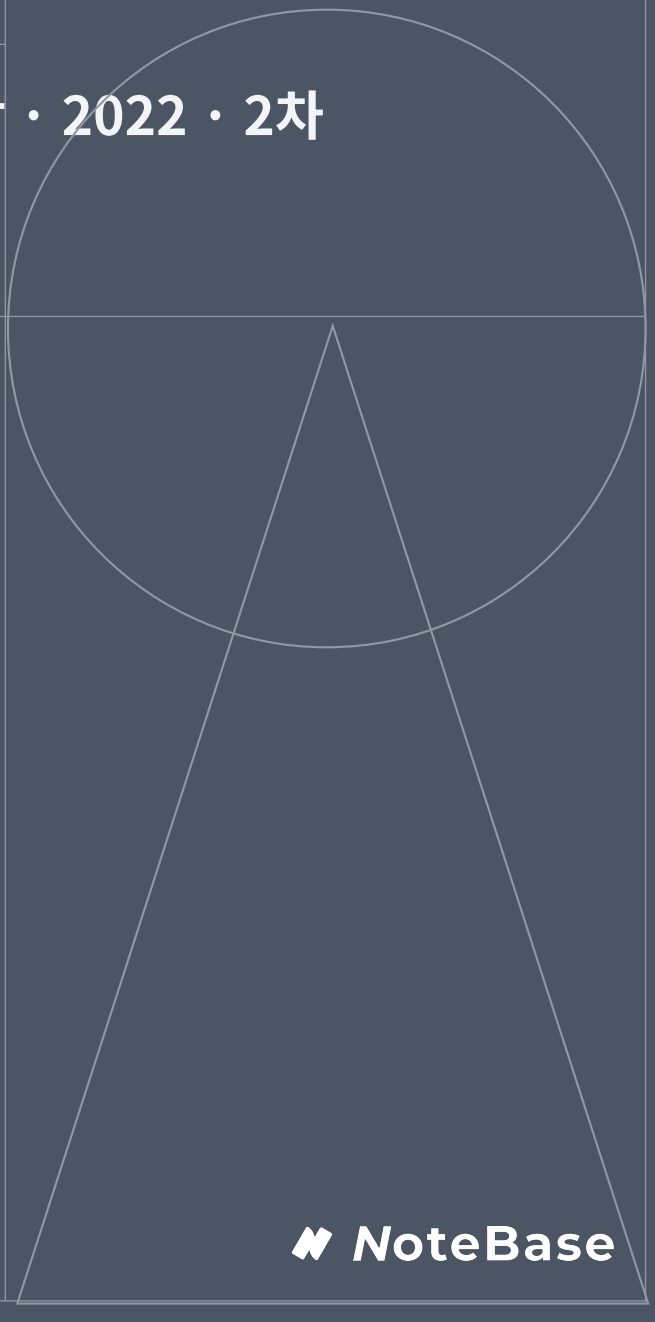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2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2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교육학 · 2022 · 2차

문 1. 교육정책에 요구되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의 원칙 - 민주적 절차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공청회 ·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이 있다.

② 중립성의 원칙 - 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을 요구한다.

③ 합리성의 원칙 - 정책에 과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형성을 추구한다.

④ 효율성의 원칙 - 비용과 효과의 비교를 통해 최소한의 시간과 인적 · 물적 자원을 들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교육정책의 기본 원칙인 민주성, 중립성, 합리성, 효율성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민주성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원칙이다.
중립성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종교적, 사적 이해관계의 압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과 교육적 타당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리성은 정책을 과학적 자료와 분석에 기초하여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시간과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비용과 효과를 따지는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주성의 원칙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있다. 공청회와 입법예고는 이러한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을 구체화하는 장치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중립성의 원칙'이다. 정책 대상의 본질과 중요도를 가려 우선순위를 정하는 설명은 중립성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 판단이나 우선순위 설정에 가까운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중립성의 원칙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종교적, 사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공익과 교육적 타당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뜻한다.
③ O. 합리성의 원칙은 정책 결정에 과학성과 논리성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형성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④ O. 효율성의 원칙은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는 원칙이다.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여 최소한의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으로 최대 성과를 거두려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우선순위'라는 표현 때문에 합리성이나 정책 판단의 느낌을 주지만, 선지의 핵심 오류는 그것을 중립성에 연결한 데 있다. 중립성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비편향성을 묻는 개념이지, 정책 대상의 중요도를 서열화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 원칙 문제는 먼저 각 원칙의 판단축을 잡으면 정리가 된다. 민주성은 참여와 절차, 중립성은 비편향성과 공익성, 합리성은 과학적 분석, 효율성은 비용 대비 성과라는 축으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민주성은 참여, 중립성은 비편향, 합리성은 과학성, 효율성은 최소 투입 최대 성과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토의법은?

◯ 3~6명으로 편성된 소집단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6분가량 토론한다.
◯ 소집단별 토론 이후에 전체가 다시 모여서 그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 ·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 소수 인원으로 소집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서로 친근감을 갖게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① 버즈 토의(buzz discussion)
② 단상 토의(symposium)
③ 배심 토의(panel discussion)
④ 공개 토의(forum)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집단의 규모, 토의 시간, 전체 공유 절차를 기준으로 버즈 토의와 다른 토의 형태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버즈 토의는 3~6명의 소집단이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주제를 토의한 뒤 전체가 다시 모여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단상 토의는 몇 명의 발표자가 단상에서 각자의 견해를 차례로 발표하는 방식이며, 청중은 주로 듣는 위치에 있다.
배심 토의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선정된 소수의 토의자가 청중 앞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공개 토의는 발표나 토의 뒤에 청중이 넓게 참여하여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공개적 성격이 강한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버즈 토의는 3~6명 정도의 소집단을 여러 개 만들어 약 6분 안팎으로 짧게 토의하게 한 뒤, 전체가 다시 모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버즈 토의의 특징을 단상 토의에 연결한 점이다.
단상 토의는 소집단 토의가 아니라 몇 명의 발표자가 단상에서 주제별 견해를 발표하는 형식이므로, 올바르게는 발표 중심의 토의 방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소수 인원의 친근한 자유 대화를 배심 토의의 핵심으로 본 점이다.
배심 토의는 사회자와 패널이 청중 앞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형식이므로, 올바르게는 선정된 토의자들의 공개 토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짧은 소집단 토의 후 전체 공유 절차를 공개 토의의 특징처럼 본 점이다.
공개 토의는 청중이 널리 참여해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 중심이므로, 올바르게는 공개적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핵심인 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버즈 토의, 배심 토의, 공개 토의는 모두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름만 보고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토의 인원 수가 적다는 점만 보고 ③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데 있으며, 결정 단서는 3~6명, 6분 내외, 전체 재집합이라는 운영 절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의법 문항에서는 먼저 참여 인원, 진행 시간, 결과 공유 방식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본다. 짧은 시간의 소집단 토의 뒤 전체 공유가 나오면 버즈 토의이고, 발표자가 단상에서 견해를 말하면 단상 토의이며, 패널이 청중 앞에서 토론하면 배심 토의, 청중 참여가 넓으면 공개 토의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버즈 토의는 소집단·단시간·전체 공유, 단상 토의는 발표 중심, 배심 토의는 패널 중심, 공개 토의는 청중 참여 중심이다.

NoteBase

문 3. 교육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명척도 - 단순히 분류하거나 범주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척도이다.

② 서열척도 - 측정대상에 순위나 서열을 부여하는 것으로, 측정단위의 간격 간에 등간성이 유지된다.

③ 등간척도 - 각 측정단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로서 절대영점은 없고 임의영점은 있다.

④ 비율척도 - 분류, 순위, 등간의 속성은 물론 절대영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감승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정의와 구별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명척도는 대상을 이름표처럼 분류하는 척도이다.
서열척도는 대상의 크고 작음이나 앞뒤 순서만 나타내는 척도이다.
등간척도는 값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만 절대영점은 없는 척도이다.
비율척도는 동일한 간격과 절대영점을 함께 가져 비율 비교와 사칙 연산이 가능한 척도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명명척도는 측정값을 단순히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설명이 옳다.
2번: X. 틀린 부분은 "측정단위의 간격 간에 등간성이 유지된다"이다. 서열척도는 순위만 제시할 뿐 각 순위 사이 간격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측정대상에 순위나 서열을 부여하지만 측정단위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이다.
3번: O. 등간척도는 각 측정단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고, 절대영점은 없으며 임의영점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명이 옳다.
4번: O. 비율척도는 명명, 서열, 등간척도의 성질을 모두 포함하고 절대영점이 있어 차이뿐 아니라 비율 비교가 가능하므로 가감승제 연산을 적용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서열척도와 등간척도를 혼동하면 2번에 속기 쉽다.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점만 보고 간격까지 같다고 넘겨짚으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척도 문제는 분류만 가능한지, 순서만 가능한지, 간격이 동일한지, 절대영점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서열척도는 순위까지만, 등간척도는 동일 간격까지, 비율척도는 절대영점까지 갖춘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명명은 분류, 서열은 순위, 등간은 동일 간격, 비율은 절대영점이라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 교과가 속한 학문의 고유한 구조를 강조한다.
◯ 교과를 구성하는 기본개념 및 법칙과 원리를 중시한다.
◯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① 학문중심 교육과정
② 인간중심 교육과정
③ 경험중심 교육과정
④ 사회중심 교육과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특징을 인간중심·경험중심·사회중심 교육과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교과가 속한 학문의 구조, 기본개념, 원리, 탐구과정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아실현, 정서, 인간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생활경험,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교육과정이다.
사회중심 교육과정은 사회문제 해결, 사회개혁, 시민성 함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학문의 고유한 구조, 기본개념과 원리, 지식의 탐구와 발견을 강조하므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인간의 성장과 정서로 보는 점이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며, 제시문처럼 교과의 학문 구조를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경험과 활동으로 보는 점이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생활경험, 문제해결 활동을 중시하지만, 제시문처럼 교과의 기본개념과 법칙을 중심으로 조직되지는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사회문제와 사회개혁으로 보는 점이다. 사회중심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와 공동체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제시문처럼 학문의 구조와 발견학습을 대표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탐구'와 '발견'이라는 표현만 보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쉽다. 그러나 경험중심은 학습자의 생활경험이 중심이고, 학문중심은 교과의 구조와 기본개념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데 초점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 학문의 구조, 기본개념, 법칙, 원리, 발견학습이 함께 나오면 먼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자아실현은 인간중심, 생활경험은 경험중심, 사회개혁은 사회중심의 단서가 된다.

암기 포인트

학문중심은 구조·개념·원리, 인간중심은 자아·정서, 경험중심은 흥미·활동, 사회중심은 문제·개혁이다.

NoteBase

문 5. 상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청 - 상담자가 자신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담자의 생각, 감정,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다.

② 질문 - 내담자의 사고·느낌·행동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내담자가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이 된다.

③ 반영 - 내담자의 왜곡된 사고와 신념을 논박하여 내담자가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④ 공감 - 내담자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면서 내담자와 소통하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담기법의 정의를 구분하여 반영, 공감, 질문, 경청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청은 상담자가 선입견을 줄이고 내담자의 말과 감정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기술이다.
질문은 내담자의 생각·감정·행동을 더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탐색 기술이다.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이나 생각의 핵심을 상담자가 되돌려 주어 스스로 명료화하게 하는 기술이다.
공감은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전달하는 태도이다.
논박은 비합리적 신념을 직접 도전하는 기법으로, 반영과는 다른 인지적 개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청은 상담자가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내담자의 생각, 감정, 입장을 집중해서 듣는 기술이므로 설명의 방향이 맞다.

② O
질문은 내담자의 사고·느낌·행동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새롭게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왜곡된 사고와 신념을 논박하여"이다.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이나 진술의 핵심을 되비추어 주는 기술이지,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기술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반영은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의 핵심을 상담자가 되돌려 주어 내담자가 자신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가 된다.

④ O
공감은 내담자의 내면 감정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설명의 취지가 맞다.
공감은 상담자의 감정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라기보다 내담자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는 태도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반영과 논박을 혼동하면 ③을 맞는 설명처럼 보기 쉽다. 반영은 내담자의 말을 비추어 주는 기술이고, 논박은 왜곡된 신념을 직접 도전하는 인지상담 기법이라는 점이 구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되돌려 준다, 비추어 준다, 명료화한다"가 나오면 반영에 가깝고, "틀린 신념을 따진다, 도전한다, 논박한다"가 나오면 반영이 아니라 논박이나 인지적 재구조화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반영은 비추어 주기, 공감은 내담자 입장에서 느끼기, 논박은 왜곡된 신념에 도전하기이다.

NoteBase

문 6. 학교와 사회평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가 사회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② 보울즈(Bowles)는 학교가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무력하다고 보았다.

③ 파슨스(Parsons)는 능력주의 관점을 토대로 학교와 사회평등은 무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④ 갈등론에서는 학교가 사회적 상승이동을 돕는 게 아니라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통로가 된다고 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교와 사회평등의 관계를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보상교육론, 보울즈의 재생산론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파슨스: 학교는 업적주의와 보편주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적 역할을 배분하여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본다.
보울즈: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를 반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기보다 재생산한다고 본다.
갈등론: 학교는 사회적 상승이동의 중립적 통로가 아니라 기존 지배질서와 불평등을 유지하는 장치로 본다.
보상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결손을 학교가 보완하면 사회평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보상교육 프로그램은 가정배경에서 비롯된 교육격차를 학교가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다. 따라서 학교가 사회평등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2번: O. 보울즈는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분리된 중립적 기관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학교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는 무력하다고 본 설명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학교와 사회평등은 무관하다'는 표현이다. 파슨스는 능력주의 관점에서 학교가 업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적 지위를 배분함으로써 적어도 기회균등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올바르게는 '파슨스는 학교가 능력주의적 선발을 통해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보았다'이다.
4번: O. 갈등론은 학교를 사회적 상승이동을 돕는 기관이라기보다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통로로 본다. 따라서 제시문은 갈등론의 관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파슨스의 능력주의를 '학교와 사회평등은 무관하다'로 읽으면 틀린다. 파슨스는 학교가 완전한 평등을 보장한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연이나 가문이 아니라 업적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기능론적 긍정 평가를 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를 사회통합과 기회균등의 장치로 보면 기능론, 학교를 불평등 재생산 장치로 보면 갈등론으로 먼저 가른다. 그다음 파슨스는 능력주의, 보울즈는 재생산론, 보상교육은 교육격차 보완이라는 대표 연결고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파슨스는 선발과 통합, 보울즈는 재생산, 갈등론은 불평등 유지, 보상교육은 격차 보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1966년에 발간된 「콜만보고서(Coleman repor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문제의식은 학업성취도 격차의 완화기제로서 학교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② 학교조건의 차이는 학업성취도 격차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③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가정 배경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④ 다른 연구자에 의해 관련 연구가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당시 사용된 분석방법과 자료의 적합성은 검토되지 못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콜만보고서의 핵심 결론과 그 이후 학교효과 연구에 미친 의미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콜만보고서는 교육기회균등을 대규모로 조사한 연구로,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를 설명할 때 학교의 물적 조건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또래구성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학교가 실제로 얼마나 성취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따지는 학교효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콜만보고서의 문제의식은 학교가 사회적 배경 차이에서 오는 학업성취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학교가 평등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었다.
2번: O. 보고서는 학교조건이나 학교 자원의 차이가 학업성취도 차이를 크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틀린 표현은 없으며, 핵심은 학교조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3번: O. 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정 배경 관련 변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콜만보고서의 대표적 결론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의 영향이 학교 내부 조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본다.
4번: X. 틀린 부분은 '관련 연구가 이어지지 못함으로써'이다. 실제로는 콜만보고서 이후 학교효과 연구와 후속 재분석이 활발히 이어졌고, 당시의 분석방법과 자료 적합성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콜만보고서가 학교의 영향력을 약하게 본 결론만 기억하면 쉽게 속는 선지이다. 학교 효과가 작게 나왔다는 사실과 후속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데, 출제자는 이 둘을 연결해 오답을 유도하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콜만보고서 관련 선지는 먼저 가정배경 영향이 크다는 결론, 학교조건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론,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후 학교효과 논쟁과 연구를 촉발했다는 흐름을 함께 대조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콜만보고서 = 가정배경 영향 큼, 학교조건 영향 제한적, 학교효과 연구 촉발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은?

◯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예시와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 학습은 일상생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진행되므로 사회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이 장려되어야 한다.

① 발견학습(discovery learning)
②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③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④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 다양한 실제 사례,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는 상황학습의 핵심 특징을 다른 학습 형태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황학습은 학습이 실제 맥락과 사회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지식은 맥락과 분리된 채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과 공동체 참여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발견학습은 학습자가 탐색과 조작을 통해 개념이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학습이다.
혼합학습은 대면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수업 운영 방식이다.
거꾸로학습은 수업 전에 온라인 등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토의·적용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발견학습'이라는 분류이다. 발견학습은 학습자의 탐구와 규칙 발견을 강조하지만, 제시문처럼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과 사회공동체 참여를 핵심으로 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상황학습이다.
② O: 상황학습은 지식이 실제 사용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전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맥락의 사례를 접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습을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과정으로 이해하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혼합학습'이라는 분류이다. 혼합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형태의 결합이 핵심이지, 지식의 맥락성이나 공동체 참여가 본질적 기준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상황학습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거꾸로학습'이라는 분류이다. 거꾸로학습은 선행학습과 수업 중 활동의 시간 배치를 바꾸는 수업 모형이다. 제시문은 시간 배치보다 실제 맥락 속 참여와 전이를 강조하므로 올바르게는 상황학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전이를 높인다는 표현만 보고 ① 발견학습으로 오해하기 쉽고, 실제 활동 참여라는 표현만 보고 ④ 거꾸로학습의 활동 중심 수업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 '다양한 맥락', '사회공동체 참여'라는 상황학습의 키워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실제 맥락, 정당한 주변참여, 공동체 참여, 맥락 속 전이 같은 표현이 나오면 먼저 상황학습을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탐구를 통한 원리 발견이면 발견학습, 온라인·대면 결합이면 혼합학습, 사전학습 후 수업 중 적용이면 거꾸로학습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상황학습은 맥락과 공동체 참여, 발견학습은 탐구와 원리 발견, 혼합학습은 온·오프라인 결합, 거꾸로학습은 선행학습 후 수업 적용이다.

NoteBase

문 9. 실험연구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숙 - 시간 흐름에 따른 피험자의 내적 변화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통계적 회귀 - 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인 사례를 다시 측정하면 실험처치와 무관하게 덜 극단적인 측정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③ 반복검사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동일한 경우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피험자 탈락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무작위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결여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험연구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성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험자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키워드는 시간 경과와 발달이다.
통계적 회귀는 처음에 매우 극단적인 점수를 보인 사례가 재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극단값과 평균 회귀이다.
반복검사는 사전검사 경험이 사후검사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키워드는 검사효과이다.
피험자 탈락은 연구 도중 일부 피험자가 빠져나가 집단 구성이 달라지는 요인이다. 키워드는 중도 이탈이다.
선발은 무작위배치가 되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처음부터 동질적이지 않은 요인이다. 키워드는 집단 구성의 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성숙은 피험자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 피로, 흥미 변화 같은 내적 변화를 겪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하므로 설명이 맞다.
2번: O. 통계적 회귀는 극단적 점수가 재검사에서 실험처치와 무관하게 평균에 가까운 덜 극단적인 값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므로 설명이 맞다.
3번: O. 반복검사는 사전검사를 한 경험 자체가 사후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할 때 특히 크게 나타난다.
4번: X. 틀린 부분은 '피험자 탈락'이다. 무작위배치를 하지 않아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결여되는 것은 피험자 탈락이 아니라 선발 요인이다. 피험자 탈락은 실험 진행 중 일부 참가자가 중도에 빠져나가 집단 간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피험자 탈락과 선발은 모두 집단 간 차이를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여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선발은 실험 시작 전 집단 구성의 문제이고, 피험자 탈락은 실험 진행 후 중도 이탈의 문제라는 시간적 위치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은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로 먼저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변화이면 성숙, 극단값의 평균 회귀이면 통계적 회귀, 사전검사 영향이면 반복검사, 연구 도중 이탈이면 피험자 탈락, 애초 집단이 비동질적이면 선발이다.

암기 포인트

선발은 시작 전 집단 차이, 피험자 탈락은 진행 중 이탈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② 수석교사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감독한다.

③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별 임무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행정직원 등의 역할을 주체별로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는 자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이다.

핵심 구분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필요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체이다.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이다.
즉 교감은 관리·보좌의 역할이고, 수석교사는 지원·교육의 역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임무이므로 옳다.

② X
수석교사에게 교감의 임무를 섞어 놓은 선지이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감독한다"
올바른 표현: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O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이므로 옳다.

④ O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수석교사와 교감을 모두 '교사를 이끄는 역할'로 뭉뚱그리면 ②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수석교사의 임무가 '감독'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점과, 교장 보좌·교무 관리는 교감의 임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직원 임무 문제는 먼저 주체를 본다. 교장=총괄·지도감독, 교감=보좌·교무관리·직무대행,
수석교사=교수·연구 지원, 교사=학생 교육, 직원=행정사무로 대응시키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교감은 관리, 수석교사는 지원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에 세워진 사학(私學)이다.
◯ 선현 존숭(尊崇)과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 지역 양반사회의 결속과 유대 강화의 기능을 하였다.

① 서원
② 향교
③ 성균관
④ 사부학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설립 주체, 위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지방에 세워진 사학으로 선현 제사와 유생 교육을 함께 맡으며 지역 양반의 결속 기반이 되었다. 향교는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관학이다. 성균관은 한양의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 관학이다. 사부학당은 한양에 둔 중등 수준의 관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조선 중기 이후 각 지방에 세워진 사학, 선현 존숭과 후진 양성, 지역 양반사회의 유대 강화라는 특징을 함께 제시한다. 이는 지방 사학인 서원의 성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향교는 지방에 설치되었지만 사학이 아니라 국가가 세운 관학이다. 틀린 표현은 기관명을 향교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제시문은 관학인 향교가 아니라 사학인 서원을 가리킨다.
③ X: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중앙 교육기관으로 한양에 설치된 관학이다. 틀린 표현은 기관명을 성균관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지방에 세워져 지역 양반사회와 결합한 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아니라 서원이다.
④ X: 사부학당은 한양의 동학·서학·남학·중학을 가리키는 중앙의 중등 관학이다. 틀린 표현은 기관명을 사부학당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조선 중기 이후 지방 사학으로 성장한 기관은 사부학당이 아니라 서원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모두 유생 교육기관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고르는 데 있다. 이 문항은 교육 내용보다 설립 주체가 사학인지 관학인지, 위치가 지방인지 한양인지, 지역 양반사회와 결합했는지를 함께 봐야 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교육기관 문제는 먼저 지방 또는 중앙, 사학 또는 관학을 구분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지방 사학이면서 선현 제사와 지역 양반 결속 기능이 나오면 서원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서원은 지방 사학, 향교는 지방 관학, 성균관은 중앙 최고 관학, 사부학당은 한양 중등 관학이다.

NoteBase

문 12.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지 진단한다.

③ 진로 개척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과목 선택제를 도입한다.

④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핵심 내용과 진로·선택 중심 정책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초학력 보장 정책: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할 최소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진단, 보정,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결정 차이축은 최소 학업성취 보장 여부이다. 키워드는 진단, 보정, 학습지원이다.
고교학점제·과목 선택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결정 차이축은 진로 선택과 과목 이수의 확대 여부이다. 키워드는 진로, 선택과목, 학점 이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진단한 뒤 개별 보정 지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O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하는지 진단하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의 출발점이다. 먼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정 지원을 연결한다는 구조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진로 개척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과목 선택제"이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나 진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최소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을 진단하고 학습결손을 보정하도록 지원한다"이다.

④ O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보정 지원에 해당한다. 교내외 학습안전망을 활용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진로 개척"과 "과목 선택제"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는 기초학력 보장이 아니라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정책의 언어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진로 확대보다 최소 성취 보장과 학습결손 보정에 초점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초학력 보장 정책 문제에서는 진단, 최소 성취기준, 보정, 맞춤형 지원 같은 표현을 먼저 찾으면 된다. 반대로 진로, 선택과목, 학점, 적성 같은 표현이 나오면 다른 교육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기초학력 보장은 진단·보정·맞춤지원이고, 과목 선택제는 진로·선택·이수 중심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어기제는?

◯ 욕구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된 이유가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신포도 기제가 활용될 수 있다.
◯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그것이 마치 바라던 일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단레몬 기제를 동원할 수 있다.

① 투사(projection)
②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③ 억압(repression)
④ 합리화(rationalizati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방어기제 중 합리화의 의미와 그 대표적 형태인 신포도 기제, 단레몬 기제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합리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 좌절이나 행동에 대해 참된 이유 대신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아를 방어하는 기제이다. 투사는 자신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리는 기제이고,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와 정반대의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기제이며, 억압은 불안한 생각이나 충동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기제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투사는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남의 것처럼 여기는 기제이다. 제시문처럼 참된 이유가 아니라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투사가 아니라 합리화이다.
2번: X. 반동형성은 실제 욕구와 반대되는 태도를 과장해서 드러내는 기제이다. 제시문의 신포도 기제는 얻지 못한 대상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므로 반동형성이 아니라 합리화의 한 형태이다.
3번: X. 억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에서 배제하는 기제이다. 제시문의 단레몬 기제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마치 원했던 것처럼 좋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억압이 아니라 합리화의 한 형태이다.
4번: O. 합리화는 실패, 좌절, 불쾌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그럴듯한 설명으로 정당화하거나 의미를 바꾸어 받아들이는 기제이다. 신포도와 단레몬은 모두 합리화의 전형적 예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방어기제 문제는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인데, 투사·반동형성·억압은 모두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이 문항은 신포도와 단레몬이라는 익숙한 사례를 제시해 놓고도 선지에서는 영어 용어를 섞어 개념 이름을 헷갈리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편한 현실에 대해 이유를 바꾸거나 가치를 바꾸어 스스로 납득하면 합리화로 본다. 내 감정을 남에게 돌리면 투사, 정반대로 행동하면 반동형성, 아예 의식에서 밀어내면 억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 붙이기, 신포도와 단레몬은 합리화의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문 14. 더 선호하는 활동을 덜 선호하는 활동의 강화원으로 활용하는 강화 방법은?

① 조형(shaping)의 원리
② 프리맥(Premack) 원리
③ 토큰 경제(token economy)
④ 타임 아웃(time out)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동수정의 강화 절차 중 프리맥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형·토큰 경제·타임 아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형은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최종 행동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점진적 접근 반응 강화이다.
프리맥 원리는 발생 확률이 높은, 더 선호되는 활동을 발생 확률이 낮은, 덜 선호되는 활동의 강화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선호활동으로 비선호활동 강화이다.
토큰 경제는 바람직한 행동 뒤에 토큰을 주고, 그 토큰을 나중에 실제 강화물과 교환하게 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교환 가능한 토큰 강화이다.
타임 아웃은 문제행동 뒤에 강화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잠시 분리하여 강화 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강화 차단을 통한 행동감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형은 더 선호하는 활동을 강화원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다. 틀린 표현은 선호 활동을 강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바람직한 최종행동에 이르도록 근접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원리이다.
② O: 프리맥 원리는 더 선호하는 활동을 덜 선호하는 활동의 강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부를 하면 놀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고빈도 행동이 저빈도 행동을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토큰 경제는 선호 활동 자체를 즉시 강화원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 토큰을 주고 나중에 강화물과 교환하게 하는 체계이다. 틀린 표현은 더 선호하는 활동을 직접 강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토큰이라는 일반화된 조건강화물을 매개로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④ X: 타임 아웃은 강화 방법이 아니라 문제행동 뒤에 강화 기회를 일시적으로 박탈하여 행동을 줄이는 절차이다. 틀린 표현은 선호 활동을 강화원으로 활용하는 강화라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강화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벌의 절차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형, 프리맥 원리, 토큰 경제는 모두 행동수정 장면에서 자주 함께 제시되어 혼동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강화를 무엇으로 주는가에 있다. 더 좋아하는 활동 자체가 강화물이 되면 프리맥 원리이고, 토큰이 매개가 되면 토큰 경제이며, 근접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 조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호도가 높은 활동으로 선호도가 낮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보이면 프리맥 원리로 판단한다. 목표행동에 가까운 반응을 조금씩 강화하면 조형이고, 토큰을 모아 교환하면 토큰 경제이며, 강화 기회를 끊어 행동을 줄이면 타임 아웃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프리맥은 좋아하는 행동으로 덜 좋아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원리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적 도제학습의 방법은?

◯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에 속하지만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 학습의 초기 단계에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많은 지지를 제공하다가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① 비계설정(scaffolding)
② 반성적 사고(reflection)
③ 명료화(articulation)
④ 모델링(model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지적 도제학습의 방법 중 비계설정, 반성적 사고, 명료화, 모델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비계설정은 학습자가 혼자서는 어려우나 근접발달영역 안에서는 가능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숙달이 높아지면 그 도움을 점차 줄이는 방법이다.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수행을 전문가나 다른 학습자의 수행과 비교하면서 성찰하는 방법이다.
명료화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한 지식, 전략, 추론 과정을 말이나 글로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이다.
모델링은 전문가가 과제 수행 과정을 직접 보여 주며 사고 과정을 시범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시문은 근접발달영역에 속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돕고, 초기에는 많은 지지를 주다가 점차 줄여 학습자의 독립 수행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비계설정의 전형적 특징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반성적 사고로 본 점이다. 반성적 사고는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을 되돌아보고 전문가나 또래의 수행과 비교하는 활동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은 반성적 사고가 아니라 비계설정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명료화로 본 점이다. 명료화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 과정이나 생각을 언어로 드러내는 활동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은 명료화가 아니라 비계설정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모델링으로 본 점이다. 모델링은 교사나 전문가가 먼저 과제 수행 모습을 시범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은 모델링이 아니라 비계설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인지적 도제학습의 여러 방법이 모두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므로 이름만 보고 섞기 쉽다. 특히 '도와준다'는 표현만 보고 모델링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인상만 보고 반성적 사고로 오인하면 틀린다. 이 문항의 핵심 단서는 '근접발달영역'과 '지지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부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속 중심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본다. 도움을 제공하고 점차 줄이면 비계설정, 시범을 보이면 모델링,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면 명료화, 수행을 되돌아보며 비교하게 하면 반성적 사고이다.

암기 포인트

비계설정은 도움 제공 후 점차 철회, 모델링은 먼저 시범, 명료화는 생각을 말로 표현, 반성적 사고는 수행을 돌아보는 것이다.

NoteBase

문 16.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지능에서 찾는 관점은 지능을 둘러싼 유전-환경 결정 논쟁과 관련이 깊다.

② 교육내용이 선정 · 조직되는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은 학업성취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검은상자(black box)'로 남겨 두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③ 가정의 문화적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은 학교 내 변인만으로는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본다.

④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관점은 교사의 기대수준 및 학생의 자기충족예언이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는 지능 관점, 교육과정 관점, 문화적 환경 관점, 상호작용 관점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지능 관점은 학업성취 격차의 원인을 개인의 지적 능력 차이에서 찾는 관점이다.
교육과정 관점은 학교가 어떤 지식을 선정하고 조직하는지가 성취 격차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 관점이다.
문화적 환경 관점은 가정의 문화자본과 언어환경 차이가 학교 성취 차이로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상호작용 관점은 교사의 기대와 학생의 자기충족예언 같은 교실 상호작용이 격차를 강화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학업성취 격차를 지능에서 찾는 관점은 지능이 선천적인가 후천적으로 발달하는가를 둘러싼 유전-환경 논쟁과 직접 연결된다.
2번 X: 틀린 표현은 "학업성취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검은상자로 남겨 두었다"는 부분이다. 교육내용의 선정·조직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관점은 오히려 학교 내부에서 어떤 지식이 공식지식이 되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블랙박스를 열어 보려는 관점이다.
3번 O: 가정의 문화적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은 성취 격차의 원인을 학교 밖 문화자본과 언어사회화에서도 찾기 때문에 학교 내 변인만으로는 격차 해소가 불충분하다고 본다.
4번 O: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관점은 교사의 기대수준, 낙인, 자기충족예언이 학생의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은 교육과정 관점의 핵심 기능을 거꾸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블랙박스라는 비판은 학교 내부 과정을 보지 못한 투입-산출식 설명에 가까운데, 교육과정 관점은 바로 그 내부 과정을 분석하려는 데 특징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단어를 먼저 잡으면 된다. 지능은 개인 능력, 문화적 환경은 가정과 문화자본, 상호작용은 기대와 자기충족예언, 교육과정은 지식의 선정·조직으로 연결하면 정오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능은 개인, 문화는 가정, 상호작용은 교실관계, 교육과정은 지식선정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17.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대상을 보완하여 완전한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②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을 의미한다.

③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구성 원자로 환원할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④ 파이 현상(phi phenomenon)의 사례처럼 지각은 종종 실제와 다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 관점인 전체성, 폐쇄성, 파이 현상과 요소 환원주의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게슈탈트 심리학: 인간은 자극을 낱낱의 요소 합이 아니라 조직된 전체 형태로 지각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키워드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 형태, 조직화이다.
요소 환원주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구성 요소로 분해하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키워드는 분해, 구성 원자, 부분의 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게슈탈트 심리학은 폐쇄의 원리에 따라 불완전한 자극도 보완하여 완결된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② O: 게슈탈트 심리학의 대표 명제는 전체가 부분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구성 원자로 환원할 때 더 정확하게 이해"이다. 이는 구조주의적 요소 분석에 가까운 설명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현상을 잘게 나누기보다 전체적 구조와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복잡한 현상은 전체적 형태와 조직 원리 속에서 이해할 때 더 적절하다"이다.
④ O: 파이 현상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자극에서도 운동을 지각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각이 물리적 자극과 기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전체적 조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구성 원자"와 "환원"이라는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을 구조주의처럼 요소 분석 중심 이론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므로, 전체를 강조하는 관점인지 요소 분해를 강조하는 관점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게슈탈트 관련 선지는 먼저 전체와 형태를 강조하는지, 아니면 요소와 분해를 강조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전체성, 폐쇄성, 통찰, 파이 현상이 나오면 게슈탈트이고, 감각 요소의 분해와 결합을 앞세우면 다른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게슈탈트는 전체와 형태, 구조주의는 요소와 분해이다.

NoteBase

문 18.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의 학교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입 취지는 단위학교 경영책임제의 활성화에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공립 초·중등학교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범위와 결산서 제출기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학부모 부담경비가 세입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결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세입은 학교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고, 세출은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회계에서 나가는 지출이다.

핵심 구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된다.
또한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는 세출로 처리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학교회계 도입 취지는 단위학교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단위학교 경영책임제의 활성화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② X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 세입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리다.
틀린 표현: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학교회계의 세입에 포함된다"

③ O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O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로 한다. 선지 문구가 법 규정의 취지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학교회계 밖의 돈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회계 문항은 먼저 세입인지 세출인지, 다음으로 주체와 기한이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학부모 부담경비는 세입, 학교 운영·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로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학부모 부담경비는 세입, 학교 운영·시설 경비는 세출, 결산서는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다.

NoteBase

문 1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인가(valence), 성과기대(expectancy) 및 보상기대(instrumentality)를 중심으로 동기유발을 설명한다.

② 유인가는 보상에 대하여 가지는 매력 혹은 인지된 가치를 말한다.

③ 유인가와 보상기대는 높고 성과기대는 낮을 경우 최고 수준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성과상여금 기준을 적용받는 교직원 간에 동기유발 효과는 다를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동기유발은 유인가, 성과기대, 보상기대의 결합으로 설명되며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핵심 정리

브룸의 기대이론은 보상이 매력적인가를 뜻하는 유인가,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인 성과기대,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인 보상기대를 함께 본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낮으면 전체 동기유발 수준은 크게 제한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인가, 성과기대, 보상기대를 중심으로 동기유발을 설명한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브룸은 보상의 매력, 노력과 성과의 연결, 성과와 보상의 연결을 함께 본다.

② O
유인가는 보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매력이나 인지된 가치를 뜻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유인가와 보상기대는 높고 성과기대는 낮을 경우 최고 수준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기대이론에서 세 요소는 함께 작용하므로 성과기대가 낮으면 노력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 전체 동기유발이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유인가와 보상기대가 높아도 성과기대가 낮으면 동기유발 수준은 낮아지거나 제한된다'가 된다.

④ O
동일한 성과상여금 기준을 적용받아도 개인마다 그 보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지와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기유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두 요소가 높으면 동기가 충분히 높아질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브룸의 기대이론은 세 요소를 따로 더하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한 요소가 낮으면 전체 동기가 크게 떨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대이론 문제는 세 요소를 각각 정의한 뒤 하나라도 낮은 요소가 있는지 본다. 유인가, 성과기대, 보상기대 중 하나가 낮으면 최고 수준의 동기유발이라는 진술은 성립하기 어렵다.

암기 포인트

브룸은 동기유발 = 유인가 × 성과기대 × 보상기대로 이해하면 정리된다. 하나가 낮으면 전체 동기도 꺾인다.

NoteBase

문 20.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② 취학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 제도를 두었다.

③ 처음 의무교육이 도입된 이후 의무교육기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④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헌법상 근거, 법률상 범위, 취학의무 불이행 제재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의 취지와 일반 의무교육 연한, 제재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의무교육 = 국가가 무상으로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취학의무를 부과하는 최소한의 학교교육이다.
취학의무 =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 학교에 입학시키고 다니게 할 의무이다.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이고, 벌금은 형벌이다.

핵심 구분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취학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정한다. 구체적 범위는 법률이 정하며, 일반적인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총 9년이다.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고등학교까지 12년 전체가 일반 의무교육은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에서만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보호자의 취학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함께 둔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 취학의무 이행 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 성격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다.
- 틀린 표현: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 제도
- 올바른 표현: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③ X
-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처음에는 초등교육 6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중학교 3년이 포함되면서 총 9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의무교육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틀린 표현: 의무교육기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 올바른 표현: 의무교육기간은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났다

④ X
- 일반적인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확대와 별개로 일반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2년간의 의무교육
- 올바른 표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9년간의 의무교육

오답 포인트

②는 제재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벌금과 과태료를 구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④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바꾸어 기억한 경우에 낚이기 쉽다. ③은 현재의 9년 의무교육만 떠올리고 변천 과정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무교육 문항은 먼저 헌법에서 교육권, 보호자의 취학의무, 무상 원칙이 함께 규정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법률상 일반 의무교육 범위가 초등 6년과 중등 3년인지 본다. 제재가 나오면 형벌인 벌금인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인지 성격을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의무교육은 헌법상 무상 원칙을 두고, 일반 범위는 초6·중3의 9년이며, 취학의무 불이행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NoteBase

문 2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교육 요구를 제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취학률은 초등교육 단계부터 빠르게 상승하였다.

② 국가 교육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육기회의 양적 팽창에 사립학교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③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기대와 맞물려 진학경쟁이 과열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④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완전취학이 달성된 1970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확대 과정의 전개 방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교육확대는 국민의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취학 기회를 양적으로 넓혀 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교육에서 먼저 취학률이 빠르게 높아졌고, 중등교육 이상에서는 공교육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기대가 커지면서 진학경쟁이 심화되었고, 고교평준화는 1970년에 전국 동시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1974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된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민의 교육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취학률이 초등교육 단계부터 빠르게 높아진 점은 우리나라 교육확대의 대표적 특징이다.

② O

국가 교육재정만으로는 교육기회의 급속한 확대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등교육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큰 역할을 하였다.

③ O

교육이 사회이동의 통로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상급학교 진학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확대가 곧 경쟁 완화를 뜻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고등학교 완전취학이 달성된 1970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표현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0년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니라 1974년 서울·부산에서 먼저 시행된 뒤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고교평준화의 시행 시기를 '1970년'으로 앞당기고, 시행 방식도 '전국 동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이 교육확대, 완전취학, 평준화 같은 연관 용어를 한 덩어리로 외우면 이런 시기·방식 왜곡에 쉽게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정책 문항에서는 정책의 방향만 보지 말고 시행 시기, 적용 범위, 확대 방식이 맞는지 함께 확인한다. 특히 '전국 동시', '완전취학 달성 이후'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한 표현은 실제 역사 전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암기 포인트

교육확대는 초등 취학률 상승, 사학 역할 확대, 진학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고교평준화는 1974년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NoteBase

문 22. 우리나라 교육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되고, 공교육비는 공공의 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경비이다.

③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사부담(私負擔)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④ 교육기관이 누리는 면세의 가치는 공부담(公負擔) 간접교육비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비를 분류하는 축인 직접·간접, 공교육비·사교육비, 공부담·사부담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교육비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고, 간접교육비는 면세나 조세감면처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부담 주체에 따라 공부담과 사부담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사교육비는 학원·과외 등 학교 밖 보충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비는 실제 지출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O: 직접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나눌 수 있고, 공교육비는 공공의 예산·회계 절차를 거쳐 학교교육에 지출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교육비"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의 입학금·수업료는 학교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사부담 공교육비에 해당한다. 사교육비는 학원·과외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지출이다.
④ O: 교육기관이 누리는 면세의 가치는 정부가 세수를 포기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공부담 간접교육비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사부담과 사교육비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다. 사부담은 누가 비용을 내는가의 기준이고, 사교육비는 어떤 교육활동에 쓰이는가의 기준이어서 분류 축이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학교교육 비용인지 학교 밖 보충교육 비용인지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가른다. 그다음 실제 지출인지 면세·기회비용 같은 우회 지원인지로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를 가른다. 마지막으로 부담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학부모 등 민간인지로 공부담과 사부담을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부담은 부담 주체의 개념이고, 사교육비는 지출 대상의 개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중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교육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교육조례안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교육감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서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 주체와 교육감에게 준용되는 조례·재의·직무이행명령 규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의무교육경비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말한다.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이행을 명하는 통제수단이다.

핵심 구분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국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반면 교육조례의 한계,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복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모두 부담"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이다.
2번: O. 교육조례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의 조례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교육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번: O.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 단계와 재의결 후 제소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
4번: O.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의 통제이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감은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번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곧바로 국가의 전액 부담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무상교육과 비용 부담 주체는 같은 문장이 아니며, 이 문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병렬 구조를 읽어내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교육자치 문항은 먼저 직접 규정인지 지방자치법 준용사항인지 나눈다. 그다음 비용 부담은 "누가 함께 부담하는가", 조례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에 법률 위임이 필요한가", 통제 절차는 "재의 요구인지 직무이행명령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의무교육경비는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교육감 통제 규정은 지방자치법 준용으로 푼다.

NoteBase

문 24.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의 비유에서 교육은 마치 석회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교사는 장인에 해당하고 학생은 석회나 진흙과 같은 재료에 해당한다.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듯이 교육을 통해 마음의 능력인 지각, 기억, 의지 등을 단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의 비유는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적 교육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한다.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듯이 교육은 아동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① (가): 만남, (나): 성년식
② (가): 만남, (나): 성장
③ (가): 주형, (나): 성년식
④ (가): 주형, (나): 성장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교육의 비유 가운데 주형의 비유와 성장의 비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형의 비유는 교육을 교사가 미리 정한 형식에 맞추어 학생을 빚어 내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틀, 장인, 재료, 형성이다.
성장의 비유는 교육을 아동 내부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자발성, 자연적 발달, 잠재력의 실현이다.
만남의 비유는 교육을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과 대화로 보는 관점이다. 핵심은 관계와 상호이해이다.
성년식의 비유는 교육을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 한 사회의 성원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핵심은 사회화와 문화전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만남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제시문은 학생을 석회나 진흙 같은 재료로, 교사를 장인으로 보고 일정한 틀에 맞추어 형성한다고 설명하므로 만남이 아니라 주형의 비유이다. (나)의 성년식은 사회 규범과 문화를 익혀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의미인데, 제시문은 아동의 잠재력의 자연적 실현을 말하므로 성년식도 아니다.
② X
(가)를 만남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주형의 비유이다. (나)를 성장으로 본 부분은 맞지만, (가)가 틀렸으므로 전체 선택지는 오답이다.
③ X
(가)를 주형으로 본 부분은 맞다. 그러나 (나)를 성년식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식물이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 권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잠재 가능성의 자연스러운 실현은 성장의 비유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성년식이 아니라 성장이다.
④ O
(가)는 교사가 외적 형식을 부여하고 학생을 재료처럼 다루는 주형의 비유이다. (나)는 아동의 내적 가능성이 스스로 전개된다고 보는 성장의 비유이므로 바르게 연결한 선택지이다.

오답 포인트

만남, 성장, 성년식은 모두 교육을 설명하는 비유이므로 이름만 외우면 쉽게 섞인다. 이 문항에서는 (가)의 장인-재료-틀이라는 외적 형성의 이미지와 (나)의 식물-자람이라는 자발적 발달의 이미지를 잡아내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사가 틀을 만들고 학생을 그 틀에 맞추는 구조가 나오면 주형으로 판단한다. 아동 내부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고 하면 성장으로 판단한다. 인격적 관계와 대화가 중심이면 만남, 사회 규범과 문화로의 입문이 중심이면 성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주형은 틀에 맞추는 교육, 성장은 스스로 자라는 교육이다.

NoteBase

문 25. 칼슨(Carlson)의 봉사조직 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고객선택권과 고객의 참여결정권은 교사와 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② 야생조직(wild organization)에 속하는 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다른 학교와 경쟁해야 한다.

③ 사육조직(domesticated organization)에 속하는 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폭넓게 인정된다.

④ 조직은 고객선택권을 갖지만 고객은 참여결정권이 없는 유형에 속하는 조직은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칼슨의 봉사조직 유형을 조직의 고객선발권과 고객의 참여결정권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객선발권은 조직이 고객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참여결정권은 고객이 그 조직에 참여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야생조직은 두 권리가 모두 있는 유형이라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과 환경 적응 압력이 크다.
사육조직은 두 권리가 모두 없는 유형이라 공립학교처럼 배정과 의무 참여의 성격이 강하다.
조직은 고객을 고르지만 고객은 참여 여부를 고르지 못하는 유형은 제3유형으로, 실제 사례가 드문 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칼슨은 봉사조직을 고객선발권과 참여결정권의 유무로 나누며, 이 두 변수는 조직의 경쟁 정도와 환경 적응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
② O. 야생조직은 조직도 고객을 고를 수 있고 고객도 참여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학교가 이 유형에 속하면 학생 유치를 위해 다른 학교와 경쟁하게 된다.
③ X. 사육조직은 조직도 고객을 선발하지 못하고 고객도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폭넓게 인정된다'이고, 올바르게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며 조직과 고객 모두 선택권이 약하다'이다.
④ O. 조직은 고객선발권을 가지지만 고객은 참여결정권이 없는 제3유형은 현실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대표 사례를 들기조차 쉽지 않다는 설명이 정설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사육조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통제가 강하다는 점만 떠올리고 학생선택권까지 넓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핵심은 통제 강도보다 '조직도 고객도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축만 확인하면 된다. 조직이 고객을 고를 수 있는가, 고객이 참여 여부를 고를 수 있는가를 본다. 둘 다 예이면 야생조직, 둘 다 아니면 사육조직, 고객만 예이면 제2유형, 조직만 예이면 드문 제3유형이다.

암기 포인트

야생은 예·예, 사육은 아니오·아니오이다.

NoteBase